"추석맞이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무주군, 장보기 행사 진행… 무주사랑상품권·소비 쿠폰 이용 홍보도 진행

무주군이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각 읍면 장날에 맞춰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안성 덕유산시장을 시작으로 10월 1일에는 무주 반딧불시장, 2일에는 설천 삼도봉장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돕고 주민들에게는 실속 있는 장보기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30일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유관 기관·단체, 상인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제수용품과 농축산물을 구입하며 성수품 물가 및 원산지 가격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무주사랑상품권'과 '소비 쿠폰' 이용 홍보도 진행했다.

무주군이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각 읍면 장날에 맞춰 진행 중이다.

시장 상인들은 "시장 분위기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증액과 15% 할인 행사, 그리고 때맞춰 지급된 소비 쿠폰도 대목장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사랑상품권 한도액은 지난 9월부터 30만 원 증액돼 최대 100만 원(지류 상품권 최대 30만 원 포함)으로, 고향사랑페이 앱과 관내 농협, 우체국 등 26개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전통시장을 통해 상인도, 주민도 활짝 웃는 명절이 되면 좋겠다"라며 "무주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무주사랑상품권의 원활한 발행·유통에 힘써 지역 경제에 큰 숨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노후상수도정비 탄력

환경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총사업비 262억4000만원 확보

진안군은 환경부 주관 '2026년도 노후상수도정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262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358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쾌거로, 진안군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 마련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의 분담 구조로 추진되며, 주요 사업은 △산암정수장 재건설(164.2억 원) △월운정수장 개량(18.4억 원) △부귀·상전 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79.8억 원)등 총 3개 사업이다.

20년 이상 운영돼 온 산암정수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함께 기계식 여과기(일명 깡통여과기)를 여전히 사용 중으로 수질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 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시설의 전면적인 현대화가 불가피해, 이번 사업을 통해 전면 재건설이 추진된다.

월운정수장은 최근 발생한 가축분뇨 유출 사고 등 상수원 오염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 기계식

여과기를 최신 급속 여과지 방식으로 개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상류 지역의 수질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정수 기능을 확보한다.

부귀·상전 블록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는 지난해 사업에서 제외됐던 지역을 새롭게 포함시킨 것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진안군 전역에 보다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정수장 현대화를 통한 수질 안전성 확보, 노후관 정비로 불필요한 수돗물 손실 방지, 수질사고 및 시설 고장 시 신속 대응 가능, 전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기반 확충을 마련하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촌 기본소득, 지역 살리고 소멸지역 주민에겐 희망"

최훈식 장수군수,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만나 선정 적극 건의

장수군은 지난달 29일 최훈식 장수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장수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최 군수는 장수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심화 △산업구조 편중 △재정자립도 취약 등을 대표적 어려움으로 꼽으며 대상지가 왜 장수로 선정되어야 하는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훈식 군수는 "농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지원을 넘어 지역을 살리고 소멸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다"며 "장수군이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군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군수는 "장수군은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기본소득 TF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인구유입과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준비된 장수군의 선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간곡히 요청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중앙부처 협업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개최

장수군은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외신기자 프레스투어'가 지난 26일 장수군 일원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간 협업으로 마련된 행사에서는 4개국 외신 기자단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특성을 살린 지방소멸 대응 사례를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먼저 트레일 안내센터를 방문해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인 '장수군 트레일빌리지'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외신 기자단은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 대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장수군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대회의 현장을 시찰하며 많은 관심을 가졌다.

또한 논개활공장, 장수종합경기장,

수분마을보급소(CP) 등 주요 거점을 둘러보며 장수트레일빌리지와 장수트레일레이스 대회 현장에서 장수러닝크루 대표와 트레일레이스 참가 선수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추석 연휴 태권도원으로 나들이 가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태권도원에서 다양한 체험과 만들기, 태권스테이를 운영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태권도원은 정기 휴원일인 10월 5일과 6일을 제외하고 운영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5월부터 태권도원 입장료를 무료로 변경한 가운데 이번 연휴 기간 태권도원 방문객은 '태권도원 상설공연'(1일 2회 / 11시, 14시)과 국립태권도박물관, 체험관, 전망대, 모노레일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1박 2일 태권도 관광 상품인 태권스테이는 '추석 연휴 태권스테이'라는

특별 상품을 마련해 7일부터 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태권스테이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태권스테이' 또는 '노는법'을 검색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7일부터 12일까지 '태권도원 추석 이벤트'를 운영한다. 태권도 체험, 전통놀이, 달고나와 허브 향기 주머니 만들기 등 체험을 진행하며 선착순으로 참가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새내기 공무원 대상 '우리 군 바로 알기' 교육

무주군이 새내기 공무원 대상 '우리 군 바로 알기 역량 강화교육'을 무주읍 드림연수원과 무주상상반디숲 등 군 일원에서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첫날 자기 탐색 및 관계 형성, 성취 경험을 통한 자신감 강화, 사고 전환을 통한 긍정적 태도 정립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공직자로서 실천과 다짐의 시간도 가졌다.

2일 차에는 선배 공무원들에게 듣는 슬기로운 공직 생활 안내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고, 적극 행정을 위한 군정 주요 업무를 공유했다. 또한 유적지인 '주계고성' 현장을 답사하고 태권도원과 반디랜드도 둘러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실시

진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앞 광장에서 기관단체와 지역주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읍 전역에서 대대적인 대청소를 실시했다.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은 추석 명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앞두고, 깨끗한 국토에서 가족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전 국민 대청결 운동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쌓인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청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진안군은 정부의 캠페인 취지에 적극 동참해 이날 진안읍뿐 아니라 면 단위에서도 일제 대청소와 캠페인을 병행했다.

발대식에는 진안읍 기관·단체, 지역 주민, 진안군청 실과소,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 △용담호 수질보호 실천 △자발적인 청소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쳐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진안군은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0월 초 긴 추석 연휴 동안 귀성객과 성묘객의 증가로 산림 내 활동이 증가하고, 9~11월 사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보다 한 달 앞당겨 총력 대응에 나선다.

운영기간 동안 군은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투입해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